

위로와 격려의 공간 한국의 숨은 정원

한국의 정원은 옛 선비들이 자연을 일상에 끌어들이며 마음의 때를 벗기고 위안을 찾는 공간이었다. 최근에는 특히 코로나19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녹색 공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국에는 민간인들이 가꾼 아름다운 정원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글·사진 성연재 기자

‘경남 1호 민간정원’ 남해 섬이정원

남해 섬이정원은 다랑논을 그대로 살려 만든 경남 1호 민간정원이다.
다랑논의 높낮이를 이용한 9개의 작은 정원이 유럽식 정원을 보는 듯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낸다.
이곳은 최근 경남도에서 뽑은 언택트 경남 힐링 관광지로 소개되기도 했다.

바다가 바라보이는 경남 남해군 남면의 남쪽 도로를 달리다 꼬불꼬불한 산길로 들어섰다. 길은 좁고 교행이 안 되는 산길이었다. '넓은 바닷가를 두고 하필이면 이렇게 좁은 산속에 정원이 있다니...' 의아한 마음을 품고 5분 남짓 차를 몰아 평산리 산골짜기에 있는 섬이정원에 도착했다. 아직 해도 뜨기 전 이른 시간이었기에 아무도 없었다. 깨어있는 것은 정문의 입장권 자판기뿐이었다. 주차 뒤 정원으로 들어서는 순간, 좁은 산길에서 받았던 아쉬움은 씻은 듯 사라졌다. 별천지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이미 가을 아침의 스산함이 어깨를 움츠리게 할 정도였지만, 정원에는 갖가지 꽃들이 만발해 있었다. 구경하기 힘들었던 벌과 나비도 어디서 나타났는지 아침 일찍부터 꽃에 매달려 있었다.

좁은 S자 길로 구성된 계류정원에는 화려한 꽃들이 앞다투어 피어 있었다. 이곳에서 한참을 돌아 언덕을 올라가니 탁 트인 전망이 나타났다. 마치 수영장 같은 형태의 직사각형 연못 뒤쪽으로 질푸른 남해 바다가 펼쳐져 있고, 연못 주위에는 핑크몰리와 프렌치 라벤더 등 다양한 허브와 화훼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늘연못정원이다. 아무도 없는 정원을 향유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체감하는 순간이었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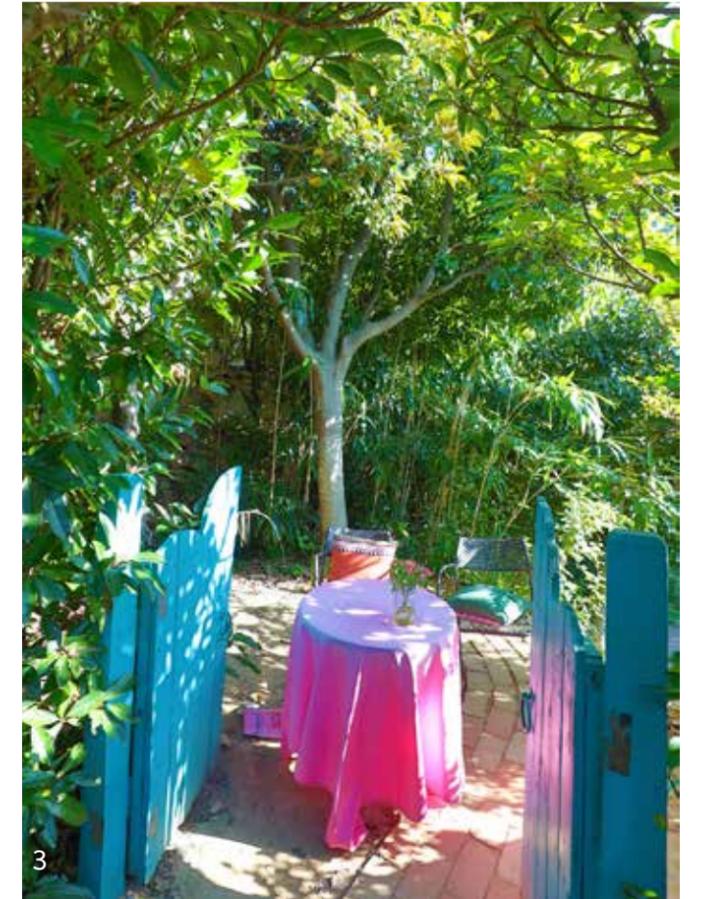
2

아침을 맞는 새들의 지저귐마저 범상치 않게 들려온다. 미동도 없는 바다와 맞닿은 하늘에는 솜사탕 같은 구름이 등실 떠 있고 그 구름은 연못에 자기 모습을 비춰 본다. 말을 잊고 풍경에 취했다. 순간 아침 햇살이 떠올라 정원을 비춘다. 화사한 햇살은 정원을 다시 살려냈다. 디즈니 만화에서 마법으로 사그라진 식물들이 생명을 찾게 되는 모습과도 같았다.

가시나무·은목서 후피향나무...다양한 난대수종

감탄하며 풍경을 카메라에 담던 중 아침 일찍부터 혼자 식재 작업을 하고 있던 차명호 대표를 만났다. 차 대표는 1만6천㎡ 규모의 농원을 거의 혼자 가꾼다. 그는 섬이정원을 모두 9개의 테마를 가진 독립된 정원으로 만들었다. 주변의 나무들이 특이해서 물어봤더니 대부분 가시나무 종류라 했다. 가시나무는 남부지방에서만 월동이 가능한 상록수다. 줄가시, 종가시, 호랑가시 등 다양한 가시나무들이 심겨 있다는 데 놀랐다. 진한 향기를 뿜는 은목서도 한쪽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난대수종의 왕자 후피향나무도 특유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다. 정원의 나무들이 대부분 난대수종이라 중부지방의 정원과는 많은 차이가 느껴졌다.

- 1 계류정원의 아침
- 2 아침 일찍 식재 작업을 하는 차명호 대표
- 3 정원 곳곳에는 수벽으로 둘러싸인 독립된 공간이 있다.



3



1 거대한 성벽처럼 보이는 다랑논의 자취
2 곳곳에서 나무를 이용해 만든 수벽을 만날 수 있다.
3 갖가지 꽃들이 만발한 정원

이 정원의 가장 큰 특징은 나무로 벽을 만든 '수벽(樹壁)'으로 공간들을 분리했다는 것이다. 수벽 뒤쪽에는 핑크빛 테이블보가 덮인 테이블과 의자가 있다. 연인들이 좋아할 공간처럼 보였다. 또 눈길을 끄는 것은 가끔 마주치는 거대한 수직 돌벽이다. 거대한 돌벽을 어떻게 쌓았는지 물어봤더니 "이곳이 원래 다랑논이었다"고 대답했다. 알고 보니 그는 남해의 다랑논 12개를 사들여 멋진 정원으로 탈바꿈시킨 것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단단한 돌벽이 곳곳에 있었다. 농사 지을 공간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 돌을 쌓았던 조상들의 지혜가 장인의 손길을 거쳐 작품으로 거듭났다.

매일 화훼 식재...끝없는 손질

차 대표는 전날 오후 부산에 다녀왔다. 화훼시장에서 꽃을 사기 위해서였다. 지난여름 지독한 장마로 수많은 꽃을 잃었다고 한다. 꽃들이 녹아내린 곳은 새로 산 화훼로 보식을 한다. 그는 이 작업을 끊임없이 계속해왔다. 덕분에 정원은 가을임에도 꽃들로 뻗뻗하다. 한쪽에는 파란색의 블루블랙 세이지 종류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옆에는 체리 세이지, 카시아, 백일홍, 천일홍과 방아도 꽃을 피우고 있었다. 멕시코 세이지는 아직 때를 기다리고 있다. 난타나, 멜란포디움, 바늘꽃 등도 자태를 뽐내고 있다. 정원을 가꾸는 일은 끝없이 정원을 다듬는 과정이라고 차 대표는 말한다. 그런 노력 덕분에 첫눈이 내리기 전까지 그의 정원은 아름다운 꽃들이 화려하게 핀다.



밧그림 그리는 데만 2년

처음부터 이런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었다. 그는 한번 쓰러린 실패를 경험한 기억이 있다. 서울에서 살던 그는 남해로 내려오기 전 정원 일에 미쳐 경기도 파주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정원을 가꿨다. 그렇지만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야 실수를 깨닫게 됐다. 마스터플랜 없이 가꾸은 정원은 너무나 볼품이 없었다. 그는 파주의 정원을 정리하고 제주도로 내려가 정원을 꾸밀 계획을 세웠다. 2007년 제주도 부동산을 이 잡듯 뒤지고 다니면서 우연히 남해로 발길을 돌렸다가 지금의 정원 자리를 발견했다. 1주일 만에 바로 계약을 했다. 그러나 마스터플랜을 짜는 데만 2년이 걸렸다. 파주의 실패를 교훈 삼았던 것이다.

차 대표는 “초심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마스터플랜 없이 정원을 가꾸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토지를 사들인 지 10여년 뒤인 2017년 일반에 공개를 시작했다. 공개한 지 몇 년 되지 않아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가 됐다. 나무가 자라기를 기다리며 가꾼 덕분이다. 이런 노력 때문인지 지난해 그는 자연을 보전하고 질 높은 녹지를 만든 공로로 ‘제19회 푸른경남상’을 받기도 했다.

한가지 그의 예상을 빗나간 것은 주 고객의 연령층이다. 중장년층이 주로 찾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젊은 커플이 대부분이다. 85%가 청년층이라고 했다. 그는 “고객들이 다른 고객의 뒤통수를 보면서 정원을 거닐면 안 된다”고 말한다. 관람객 수를 제한하더라도 쾌적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 1 빈자리에 꽃을 심는 차명호 대표
- 2 부산에서 싼고 온 꽃들
- 3 차를 마실 수 있는 농막
- 4 양강다숲의 꽃무릇





남해 전체가 큰 정원

섬이정원을 나와 오랜만에 다랑논 지역으로 유명한 남면 홍현리의 다랭이마을을 들렀다. 연푸른 남해의 아름다운 해안을 배경으로 가을 벼들이 다랑논에서 노랗게 익어가고 있었다. 어쩌면 남해가 하나의 커다란 정원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벌써 벼 베기를 끝낸 논도 있었다. 수확이 끝난 논들을 배경으로 걸어 다니는 관광객들의 모습은 평화로웠다.

다랭이마을을 나온 뒤에는 꽃무릇과 상사화(相思花)가 아름다운 앵강다숲마을을 둘러봤다. 이곳에서는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만개한 붉은 꽃의 향연을 감상할 수 있다. 꽃무릇과 상사화는 둘 다 꽃이 필 때 잎은 나지 않고, 잎이 자랄 때는 꽃이 피지 않아 꽃과 잎이 서로 볼 수 없다고 한다. 상사화라는 이름도 여기에서 나왔다. 꽃무릇으로 유명한 다른 곳들은 다 꽃이 졌지만, 이곳 남해의 꽃무릇은 오랫동안 피어 있어 붉은 꽃물결을 보고 즐길 수 있다.

자연주의 한국의 '타샤 튜더' 임지수 씨의 정원

임지수 씨는 서울 광화문에서 직원 100여 명을 둔 IT 관련 회사를 운영하다 청산하고 전북 장수로 내려가 정원사가 됐다. 10여년간 꽃과 나무에 미쳐 정원을 가꾸온 그는 '한국의 타샤 튜더'로 불린다. 임씨는 욕심을 버리고 자연과 살아가는 나날들이 즐겁다고 말한다.



연못에서 노니는 진돗개를 바라보는 임지수 씨

타샤 튜더(Tasha Tudor, 1915~2008)는 미국 버몬트주에 10ha에 달하는 땅에서 40여년간 정원을 가꾸며 살았던 자연주의 동화작가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천을 짜 옷을 만들고 염소를 키워 그 젖으로 요구르트를 만드는 등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았던 정원사였다.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 바로 임지수 씨다.

전북 장수군에서 타샤 튜더처럼 자연주의 정원을 가꾸고 있는 임씨를 찾았다. 임씨는 작업실과 농원 등 모두 2곳에서 원예작업을 한다. 먼저 계남면에 있는 임씨의 작업실을 찾았다. 작업실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장계면 명덕리의 정원은 다음날 가보기로 했다.

임씨는 여전히 전문직 여성 같은 느낌을 줬다. 작업실 안으로 들어갔다. 외벽이 징크로 마감된 건물 왼쪽에는 18㎡ 규모의 단아한 온실이 자리 잡고 있다. 갖가지 화초가 삼목(挿木, 식물의 가지, 줄기, 잎 따위를 자르거나 꺾어 흙 속에 꽂아 뿌리 내리게 하는 일)돼 있었다. 그리 크지 않은 규모지만, 온실 안팎으로 삼목된 작물은 줄잡아 30종, 1만3천여개에 이른다. 작업실에는 때마침 인근 진안군에 귀촌해 정원을 가꾸고 있다는 한 여성이 찾아와 그와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블로그를 통해 알게 된 이웃이라고 한다.

광화문 탈출

임씨의 블로그 이름은 '광화문 탈출'이다. 임씨가 광화문을 떠난 것은 10여년 전이다. 경영은 순탄했고 회사는 잘나갔지만, 그는 오후 3시쯤만 되면 어김없이 목덜미가 뻐뻐해지고 피로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증상을 겪었다. 몸은 점점 만성 피로에 시달리며 지쳐갔고, 늘 불안하고 초조했다. 불면의 밤이 늘어나고 초췌한 얼굴로 출근하는 일이 잦아지자, 그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북한산을 다니거나 조경수 전지를 배우는 등 자연과 접하며 은퇴 후에는 자연



1 계남면의 작업실에 마련한 온실
2 계남면의 작업실
3 임지수 씨가 삼목 작업이 된 작물에 물을 주고 있다.
4 블로그 이웃과 대화하는 임씨



의 품에서 생활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은퇴 시기를 앞당겨야겠다는 결심이 섰다. 가족들에게 '독립'을 선언했다. 혼자 거처를 산골로 옮기겠다고 통보했다. 남편을 비롯해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그를 꺾을 수는 없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루 해가 드는 좋은 땅을 고르기 위해 한겨울에 땅을 보러 다녔다. 등산화 한 켤레가 다 닳도록 주말마다 야산을 헤매고 다닌 끝에 전북 장수에 땅을 구했다. 열대야를 피하고자 해발 500m 이상의 토지를 찾았는데 때마침 그런 땅이 나타났다. 그는 "처음 봤을 때 바로 여기다"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이후 회사를 정리하고 내려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야산에 컨테이너 한 동을 갖다두고 그곳에서 10년 넘게 살았다. 생태 화장실도 꾸몄다. 생태 화장실에서 나온 거름은 농장 주변 화초와 나무를 기르는 데 중요한 영양분이 됐다. 그는 2014년 1천800만원을 주고 계남면의 한 촌집을 사들여 리모델링한 뒤 살고 있다. 깔끔하게 수리된 집은 임씨 혼자 지내기에 부담이 없어 보였다.

'Farm 나무와 풀'

정원 일을 시작할 때는 잡초부터 제거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임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풀을 키우는 일이었다. 땅이 비옥하지 않은 마사토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가꾼 정원의 이름은 'Farm 나무와 풀'이다. 그는 잡초와 야생화가 어우러져 살아가도록 한다. 큰 간섭을 하지 않는다. 다만 꽃을 심어야 할 곳은 잡초를 예초기로 날린 뒤 땅이 비옥해지면 꽃씨를 뿌린다. 임씨는 이어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사과나무 350주와 조경수 묘목 2천주를 심었다. 여러 해 정성껏 키운 나무들은 이후 정원 운용에 필요한 자금 문제를 해결해 줬다. 컨테이너 오두막밖에 없던 정원에 그는 함석지붕을 한 야외 식당을 하나 열었다. 2층은 원두막 형식으로 하고, 1층에는 주방을 뒀다. 비가 올



1

1 장계면 명덕리 정원의 생태 화장실
2 농장 입구의 나무간판
3 하늘에서 본 임씨의 원두막 겸 식당



2



3

때면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요리를 할 수 있다. 또 하나 그가 자연을 즐기는 방법은 노천탕에서의 목욕이다. 이를 위해 빨간색과 노란색, 파란색 타일로 샤워실을 만들고 야외 욕조를 들었다. 새벽 5시부터 일을 해야 하는 농사철에는 하루에도 몇번씩 이곳에서 몸을 식힌다.

임씨의 정원은 매력이 많다. 관광객을 끌어들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 하니 임씨가 한마디 던진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면 제가 일일이 신경을 써야 하잖아요? 전 그게 싫어서 광화문을 탈출한 거예요.” 조금 덜 써도 굶을 일이 없으므로 더 별면서 힘겹게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방법에 대해 어쭙잡은 조언을 해 주려던 필자는 머쓱해졌다. 그는 현재 블로그를 통해 찾아온 팬들과만 소통하며 정원을 공개하고 있다.

자연주의 정원과 잡초 제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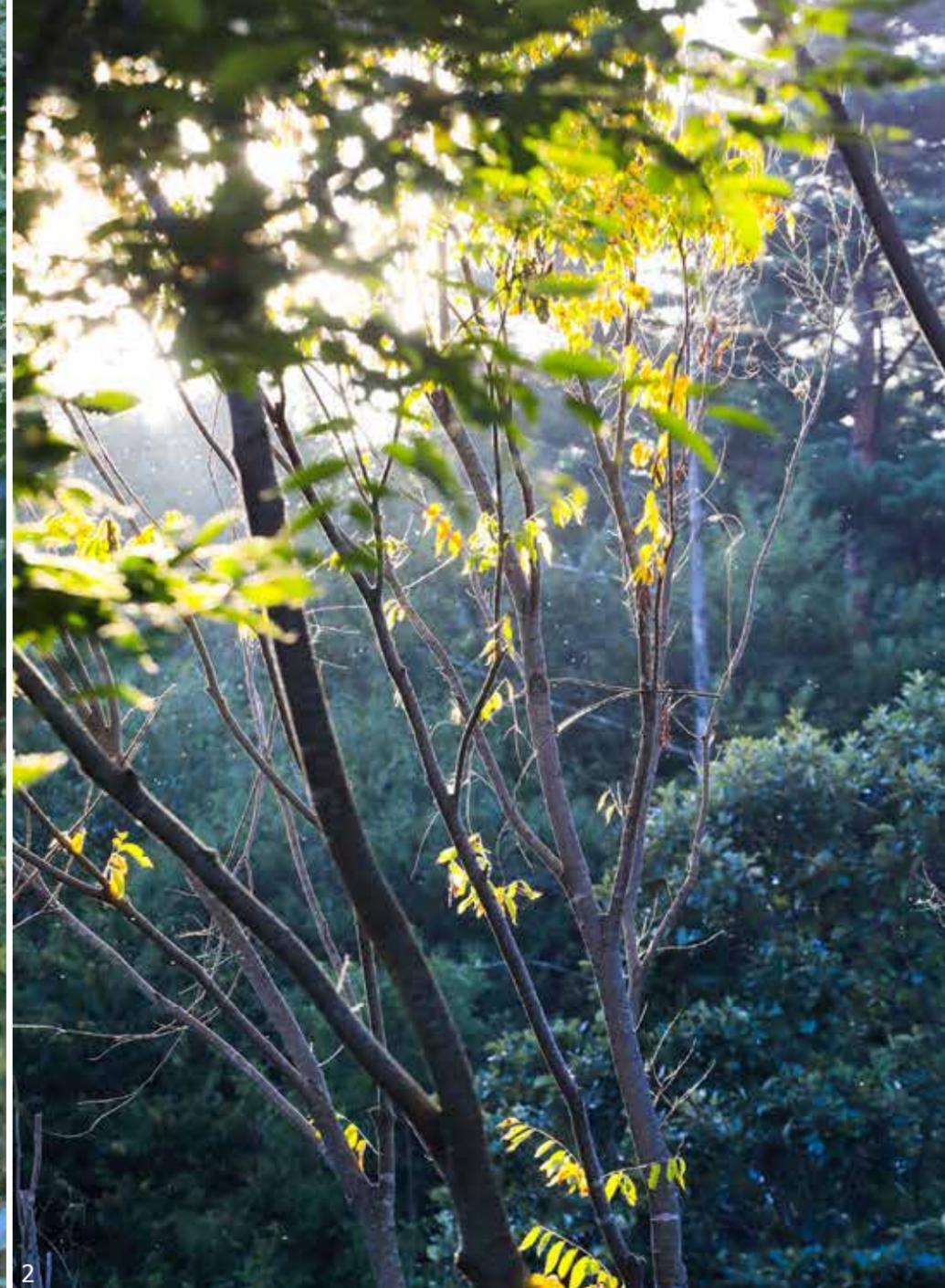
새벽부터 정원을 살펴보고 싶은 마음에 임씨에게 양해를 구하고 정원 앞에서 차박을 했다. 정원에서 보는 일출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였다. 아직 어두운 시간, 카메라를 챙겨 정원으로 올라갔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컨테이너 하우스 옆의 넓은 잔디밭이었다. 잠시 기다리니 아래쪽 마을을 배경으로 떠오른 해가 정원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목가적 풍경 속에 정원을 지키는 진뿔개와 새끼 몇 마리가 폴짝거리며 뛰노는 모습도 잊히지 않을 것 같다.

아무도 없는 고즈넉한 시골 정원의 여유를 즐기고 있노라니 곧 임씨가 출근했다. 깔끔하고 단아한 도시 여성의 모습 그대로였다. 수십 년간 도시에서 CEO로 일했던 티는 벗을 수 없나 보다. 마침 출출해질 무렵, 임씨가 조식 바구니를 건넸다. 고구마 몇 개와 우유지만, 눈부신 가을 햇살이 반짝이는 정원에서 '왕후의 조식'을 즐겼던 것은 큰 행운이었다.



1 정원에 차려진 소박한 조식
2 정원에서 지렁개 꽃을 바라보는 임씨





- 1 진돗개 한 마리와 임도를 살펴보는 임씨
- 2 임씨가 심어놓은 느티나무 사이로 해가 지고 있다.
- 3 정원 뒤 야산에서 발견한 영지버섯과 햇밤
- 4 정원을 지키는 진돗개 강아지들

곧이어 임씨와 함께 임도 나들이에 나섰다. 임씨는 낮 하나를 쟁겨 산으로 향했다. 임도 주변을 뒤덮은 칩닥굴 제거용이었다. 사정없이 낮으로 칩의 뇌두를 잘라내는 손놀림은 전문가다웠다. 한 동안 잡초를 제거한 그는 꽃무릇과 국화가 피어있는 정원으로 내려갔다. 역시 잡초 제거가 가장 큰 일과였다. 그는 “어떤 때는 하루 열 시간 동안 잡초를 제거한 적도 있다”고 했다. 열정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완만한 경사가 진 임씨의 정원에선 멀리 명덕리 마을이 내려다보인다. 마을을 정면으로 보면서 왼쪽에는 컨테이너 오두막과 욕실, 원두막이 있고, 길을 사이에 두고 오른쪽은 수령 10년이 넘는 느티나무들이 버티고 있다. 그 밑에는 그늘에서도 잘 클 수 있는 화훼들을 심었다. 지금 정원엔 꽃무릇과 구절초가 한창이다. 임씨는 여기서도 낮을 들고 틈만 나면 잡초를 잘라낸다. 흥미로웠던 건 커다란 연못이었다. 축구장 절반 크기의 연못이 자연 친화적으로 가꿔져 있었다. 진돗개 한 마리가 내려가 물을 먹는 모습도 정겨운 풍경이다. “연못에 물을 좀 더 채우면 어떨까”는 말에 임씨는 “물이 흘러가는 대로 두고 싶다”고 했다. 그가 추구하는 스타일을 이전 알 것 같았다.

엄마도 꿈꿀 권리가 있다

임씨는 2018년 10년 동안의 전원생활 경험을 담은 책 ‘엄마도 꿈꿀 권리가 있다’를 펴냈다. 반응은 뜨거웠다. 여성 혼자 시골로 뛰어들어 성공을 거둔 스토리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임씨가 강조하는 건 단순한 성공 자체보다는 고된 노동을 견디며 그가 얻은 마음의 평화다. 책에는 그 과정이 곳곳에 나와 있다. 여성 특유의 섬세한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져 온다. 전원생활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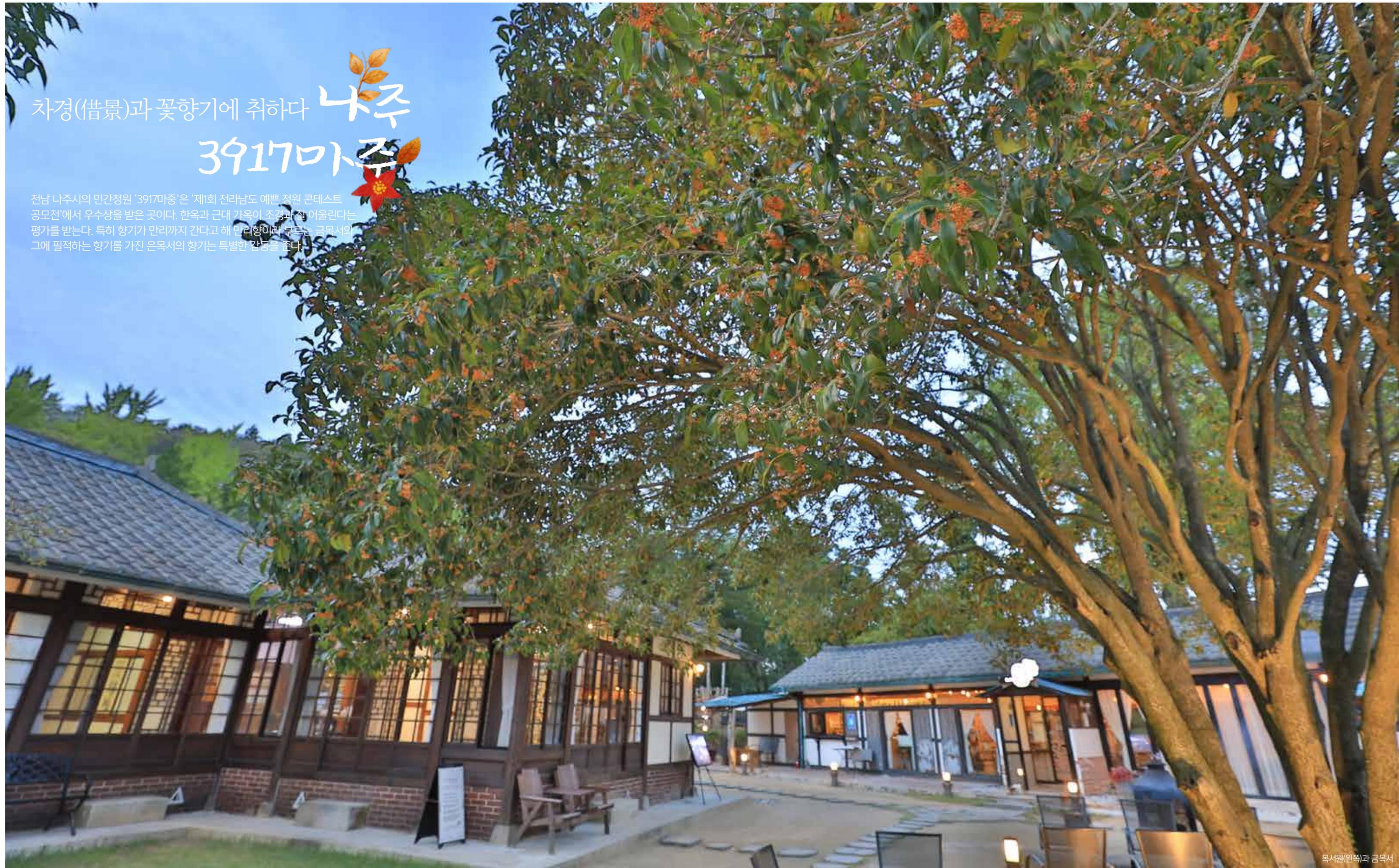
“새벽 창가에 여명이 비추면 아침이 오고 있다는 설렘에 행복한 미소가 절로 피어난다. 아침이 오는 것을 이렇게 편안하게 느끼기 위해서 나는 참으로 먼 길을 돌아왔구나 싶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어느 누구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아침의 여유는 얼마나 자유로운 경험인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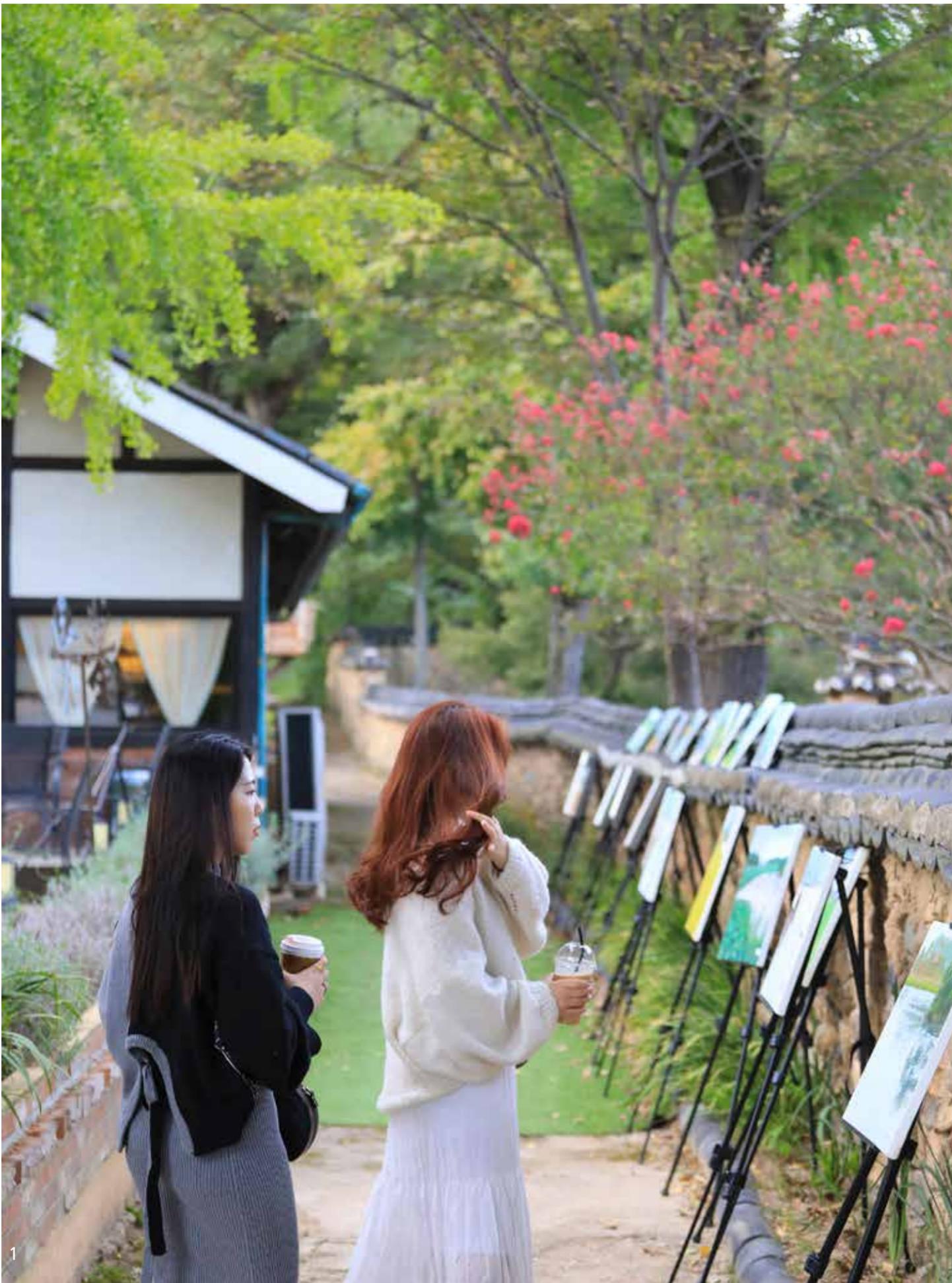
- 임지수 ‘엄마도 꿈꿀 권리가 있다’ 중에서



차경(借景)과 꽃향기에 취하다 나주 3917마중

전남 나주시의 민간정원 '3917마중'은 '제1회 전라남도 예쁜 정원 콘테스트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곳이다. 한옥과 근대 가옥이 조경과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향기가 만리까지 간다고 해 만리향이라 부르는 금목서와 그에 필적하는 향기를 가진 은목서의 향기는 특별한 감동을 준다.





1



2



3

- 1 관람객들이 향교벽에 전시된 그림들을 관람하고 있다.
- 2 언덕 위의 '엔택트 오투존'
- 3 진한 향기를 뿜어내는 은목서

80년된 금목서·은목서 향기 그윽한 공간

전라도(全羅道)는 전주(全州)와 나주(羅州)에서 따온말로, 이러한 지명을 얻은 지 1천년이 됐다. 나주는 전라도의 뿌리 같은 도시다. 이곳에 여행자들을 환영하는 조용한 정원이 있다. '3917마중'이라는 공간이다.

정원 가운데는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근대 가옥이 있고 그 앞에는 수령 80년의 금목서 한그루가 자리 잡고 있다. 금목서는 향수 샬 No. 5의 원료로 쓰인다는 나무다. 그런데 어디선가 더 짙은 향기가 진동했다. 근대 가옥 왼편에 있는 야트막한 언덕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있는 은목서에서 풍기는 향기였다. 금목서 꽃은 절정을 지났고, 은목서는 절정을 향해 치달고 있었기에 더 진한 향기를 냈다. 은목서도 수령이 80년이다. 금목서와 은목서의 향기를 잊지 못해 이곳을 다시 찾는 사람도 있다.

언덕 옆에는 붉은 상사화가 피어있고 그 뒤로 벤치 그네가 있다. 언덕 위로 올라가니 정원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다. 제일 위에는 작은 원두막이 있고, 그 밑에 쉬어갈 수 있는 작은 벤치 등이 다채롭게 꾸며져 있다. 벤치 바닥에는 수백 년 된 고택에서 뜯어온 기와가 깔려 있다. 3917마중 측은 정원 전체를 '엔택트 오투존'이라 이름 붙이고 시민들이나 여행자들이 거리를 두며 쉴 수 있도록 했다.

정원을 만든 사람은 민간도시재생 전문가 남우진 대표다. 그는 전북 전주 지역에서 오랜 기간 도시재생 사업을 해 온



1

1 정석진의 장남 정우찬이 살던 난파정 2 꽃무릇을 배경으로 나무 그네를 타는 관람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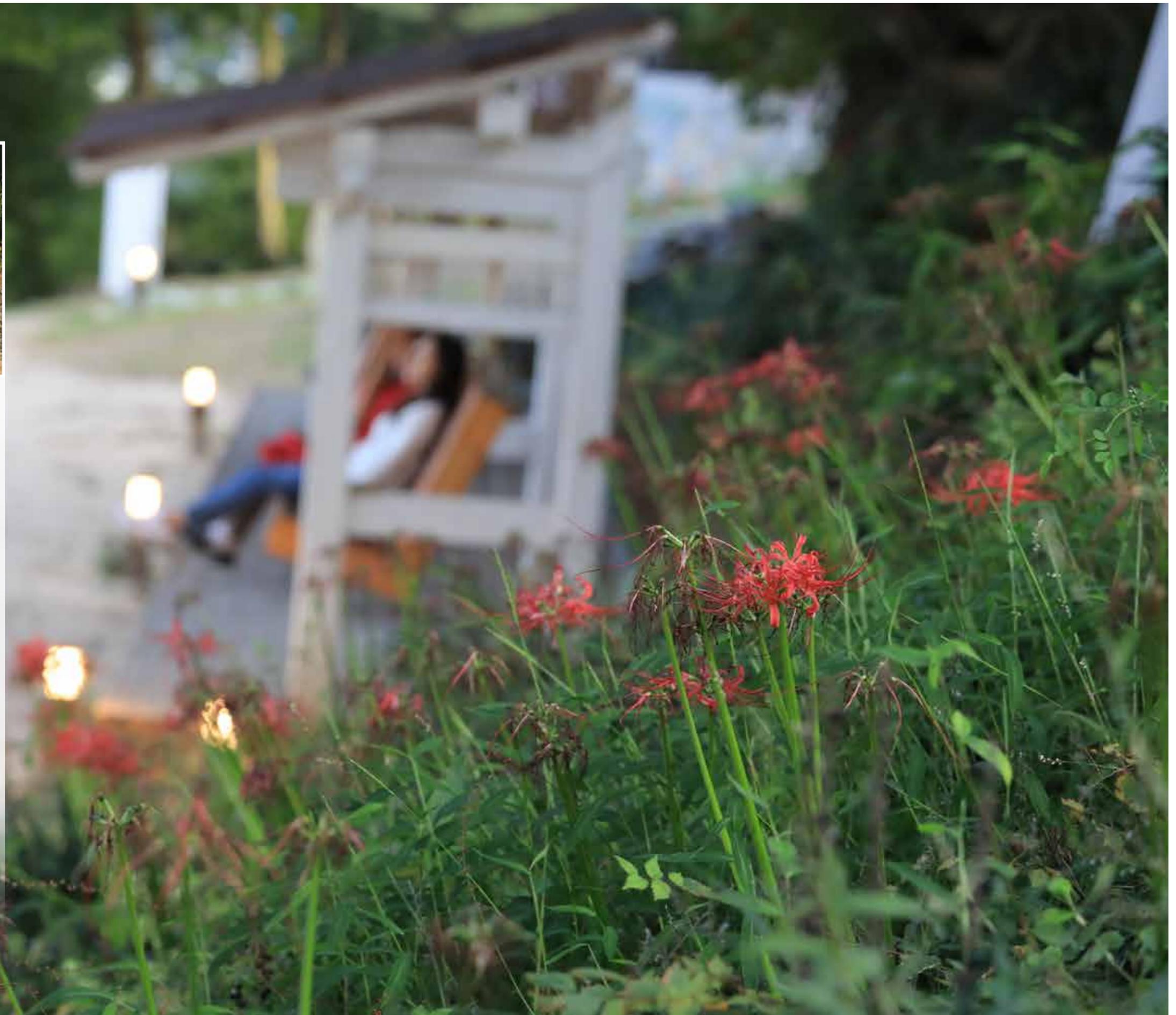
경험을 살려 2017년 나주로 내려와 고택을 손보고 1만3천㎡에 달하는 부지를 정원으로 가꾸었다.

남 대표는 “수백 년 된 좋은 나무들이 많아 조금만 손을 보았는데 빛이 났다”고 말했다. 그의 노력 덕분에 이곳은 단순한 정원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체험과 숙박 등이 가능한 나주 여행의 핵심 공간이 됐다. 유구한 역사를 지닌 나주가 관광지로 새롭게 주목받게 된 것은 남 대표 덕분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난파정과 목서원

나주 근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한 명 있다. 난파(蘭坡) 정석진(鄭錫珍)이다. 정석진은 1895년, 단발령에 반발해 의병을 일으켰지만, 관군에게 붙잡혀 참수됐다. 지역 호장이었던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동학혁명 당시인 1894년에는 나주로 내려온 동학군들을 서성문 일대에서 물리친 인물이기도 했다. 이처럼 나주는 구한말 호남에서 가장 뜨거운 곳 가운데 하나였다.

난파정은 원래 난파 정석진의 큰아들 정우찬이 살던 집터로, 조선 시대 지어진 집을 1915년에 재건립했다. 금목서가 있는 1939년 세워진 일본식 근대 가옥인 목서원은 정석진의 손자 정덕중이 그의 어머니를 위해 지은 가옥이다. 특히 한·일 양국의 건축 양식을 절충해 근현대건축학적으로도 보존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대 대목이었던 박영만이 설계와 공사를 맡았다. 이 두 곳은 최근 리모델링을 통해 게스트하우스로 재탄생했다.



2

3917마중 조경의 본질...경치를 빌리다(借景)

선조들이 예로부터 한옥을 지을 때 창문의 기능적인 면과 더불어 고려한 것은 풍경을 담을 수 있는 액자로서의 가치였다. 특히 이렇게 즐길 수 있는 풍경은 물감이나 수묵으로 그린 평면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 움직이며 사계절을 보여주는 입체적인 것이었다. 바로 차경이다. 말 그대로 경치를 빌린다는 뜻이다.

3917마중의 정원 내부도 아름답지만, 더 아름다운 것은 바로 옆자리에 있는 나주향교의 담벼락이었다. 수백년 된 나주향교 담벼락은 80년 된 쌀 창고를 보수한 목서원 카페 내부와 바깥쪽 등 어디서도 보였다. 때마침 향교 내부에 뒤늦게 핀 붉은 배롱꽃과 기와가 어우러진 모습은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수 년 전 눈이 평평 내리던 어느 겨울날 나주를 방문했다가 카페 창문을 통해 향교 담벼락의 설경을 즐긴 기억이 났다. 이처럼 4계절 모두 다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다.

카페 뒤쪽에는 200년 된 느티나무와 회화나무가 맺어진 연리지가 있다. 남 대표는 연리지 옆쪽에 바로 옆의



1



2



3

1 카페 너머로 향교가 보인다.
2 느티나무와 회화나무의 연리지
3 계단에 올라서면 향교 연못이 내려다보인다

향교 내부의 경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고풍스러운 나무계단을 만들었다. 계단에 올라서니 향교 뒤쪽의 연못이 입체적으로 들어온다. 향교 내부에서도 잘 볼 수 없는 각도다. 더없이 시원한 느낌을 줬다. 선조들의 조경 지혜를 적절히 활용한 멋진 작품이다.

‘아름다운 정원’ 선정된 이유

3년간의 피나는 노력 덕분에 이곳은 짧은 시간에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우뚝 섰다. 지난해 전남도 주관·산림청 후원으로 열린 '제1회 전남도



예쁜정원 콘테스트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는 영광도 안았다. 이곳이 지역민이나 관광객과 소통하는 공간이란 점이 주목을 받았다. 이곳은 민간정원이지만 어느새 지역민이나 관광객들이 찾아 쉴 수 있는 지역 거점이 돼 있었다. 특히 나주는 전남 지역의 다른 관광지로 쉽게 오갈 수 있는 위치에 있기에 가점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입장료는 정원에 딸린 작은 카페에서 음료수를 시키는 것으로 대신한다. 카페에서 판매하는 지역 특산물 나주배를 이용한 음료수와 '나주배 크로플' 등 디저트가 맛있다. 나주배 아이스 등 음료와 나주배 양갱, 나주배 한과 등으로 구성된 '나주배 한상 세트'(2만5천원)를 주문하면 고택 내부 다다미방을 독립적으로 즐길 수 있다. 나주배 크로플과 나주배 음료 2가지 등을 즐길 수 있는 크로플 세트는 2만8천원이다. ♡